

# “순천만갯벌 해상데크 설치 안된다”

###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설치 추진 순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보호생물 고려 없는 계획 철회 요구

순천시가 순천만갯벌에 해상데크 설치를 추진하자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순천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만갯벌 해상데크 설치 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만갯벌의 해상데크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상데크 조성 사업은 순천만에 남은 유일한 자연해안선 구간을 지나고 그 곳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이 수립됐다”면서 “순천만갯벌은 신안·고창·서천 등 서남해안 갯벌 4곳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어 인공시설물 해상데크 설치에 지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순천시는 2019년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뉴딜 300사업’에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세부사업 중 화포와 우명갯벌에 설치 계획인 1km의 해상데크가 순천만에 남은 유일한 자연해안선 구간을 지나고, 그 곳에 서식하는 해양



순천만갯벌 해상데크 설치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만갯벌 해상데크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위 제공>

보호생물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동, 붉은발말뚝게, 갯게 등이 서식하는 곳”이라며 “사람들의 출입이 어려워 서식지가 잘 보전되어 있는데 해상데크가 설치되면 환경 파괴 및 서식지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순천시청 면담 후 ‘순천만갯벌 파괴하는 해상데크 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 전남도, 국회의원, IUCN, 랍사르사무국 등에 관련 내용에 대

한 시민 의견서와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갯벌 보호와 실질적인 어항 어촌 정주환경 개선,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반영돼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갯벌은 국가지정 보호지역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탐사 사이트이다. 2021년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앞둔 중요한 생물 서식 공간으로 경관적 가치와 환경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유네스코는 4~6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보존상태가 불량할 경우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하기도 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개항 100주년 여수항 ‘다시 100년 밑그림’ 그린다

### 해수부 해양복합관광 거점 육성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 주철현 의원 “새 기능 모색 필요”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이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여수 원도심 재생 등을 담은 청사진이 그려진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여수박람회장에서 여수시, 여수관광항공사, 지방의원, 여수상공회의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해운항만업계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자원이 연계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탈바꿈하고자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이는 내년 3월까지 3억6000만원을 투입, 여수신항과 신북항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여수항의 항만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수항 기능을 다시 짜고, 항만개발 구역은 해양관광 기능과 연계할 계획이



해수부는 지난 9일 여수엑스포장에서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를 갖고 여수항을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다. 원도심과 여수 구항을 아우르는 발전 방향과 국제 크루즈 선사 유치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여수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여수항·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담는다.

주 의원은 보고회에서 기능이 저하된 기존 항만을 재개발해 도심 재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항과 인천항 사례를 소개하며, 여수항의 새로운 청사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여수항은 1923년 남해안의 작은 포구로 개항해 2012년에는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를 개최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화물처리 기능이 광양항으로 옮겨감에 따라 무역항으로서의 위축돼 새로운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앞으로 여수관광항공사, 여수지역 시민단체, 여수시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목표와 세부 과제를 세워 종합발전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광양중마시장 배달 앱 ‘놀장’ 개시...배송비 무료

### 중마동권역에만 서비스 제공 주문 상품 2시간 이내 배달 원칙

광양중마시장이 오는 19일부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앱인 ‘놀장’(놀러와요 시장)을 개시한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중마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놀장’ 배달서비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돕고 시민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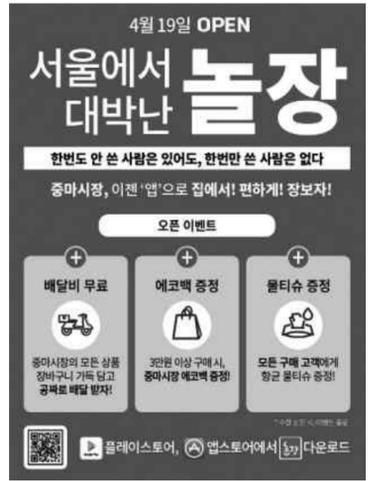
놀장 배달서비스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놀장 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 후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 된다.

서비스는 중마동권역에만 제공되며, 배송비는 무료다.

주문 상품은 2시간 이내 주문자에게 배달되며,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중마시장 에코백을, 모든 구매고객에게는 향균 물티슈를 증정한다.

구매자는 앱을 통해 상품 준비, 배달자 위치, 배송 예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환불 가능하다.

광양중마시장은 지난 2005년 개장해 88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추진위원회 출범

### 여수시 범시민 15만 서명 운동 시작

여수시는 지난 10일 여수시 히든베이 호텔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시 추진위원회’ 창립식을 열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창립식에는 추진위원장인 안규철 회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시), 장충남 남해군 군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추진위는 여수시 범시민 15만 서명 운동과 국회 대토론회 개최, 조기 건설 촉구 공동건의 및 청원서 제출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전남 여수시 삼일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을 연결한다.

길이는 해저 4.2km, 육상 1.73km 등 총 7.3km로 63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 균형발전, 실질적 동서 통합 실현, 국토 77호선 미연결 구간 완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권역 통합을 통한 관광 경쟁력 증진 등이 기대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해저터널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곡성군,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진행

### 매출 감소 임업인 100만원 영세 임업인 30만원씩 지원

곡성군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돼 지원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산림청에 등록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재배 임업경영체 중 매출이 감소된 농가다.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면적 300㎡~5000㎡의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하는 농가로 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 바우처는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구비해 경영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으로 확정되면 5월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